

#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 297호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홍보실  
주소 110-793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대표전화 1577-7755

아랍에미리트  
ARAB EMIRATES



행복한 소통의 시작, 현대건설 이야기

## 사막위에 바벨론의 꿈을 짓다



Photo  
News

가난한 어촌마을 아랍에미르를 기억하는 이는 더 이상 없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와 스키장까지 갖춘 호화로운 인공도시는 이제 인간의 한계와 꿈에 도전하는 기적의 상징이 됐다. 현대건설은 1978년 두바이 화력발전소와 아부다비 하수처리설비 등을 시공하며 거대한 프로젝트의 토대를 만들어왔다. 현재는 우리나라 최초 해외 원전 사업인 UAE 바라카(Barakah) 원자력 발전소, 사브 해상원유 및 가스처리시설 등 석유화학·발전 시설부터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대관람차까지 대규모 공사를 주도하며 21세기 아라비아의 신화에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더하고 있다. <관련기사 4, 5면>



현대건설이 시공한 UAE 제벨알리 컨테이너 터미널 1단계(왼쪽)와 아부다비 합산-5 가스공장 전경.

## 현대건설, 울산의 미래를 잇다

울산대교 지난 1일 정식 개통... 주탑 간 거리 1150m 세계 3위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인 울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단경간 현수교가 착공 60개월 만에 베일을 벗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준공식이 지난달 29일 울산시 남구 매암동 울산대교 현장 입구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울산 시장, 정갑윤 국회의원 등 기관 및 단체장과 공사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개통을 축하했다.

이날 현대건설 권오혁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울산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오랜 터전이자 숨결과 땀이 배어 있는 고향 같은 곳”이라며 “울산대교가 교통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제1의 힐링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태훈 과장을 비롯한 현대건설 울산대교 현장 직원 6명에게는 울산대교 완공의 수훈을 치하하는 장관 및 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현대건설이 2010년 5월 착공한 울산대교는

울산시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일산동을 잇는 총연장 8.38km의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 5398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울산만을 가로지르는 울산대교는 두 개의 주탑 사이의 경간이 하나로 연결된 단경간 현수교로, 1150m에 이르는 주탑 간 거리는 중국의 룡양대교와 장진대교에 이어 세계 세 번째를 자랑한다. 현대건설은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1960MPa(메가파스칼) 초고강도 케이블을 사용하고, 국내 최초로 PPWS 가설공법을 적용해 공기 단축은 물론 품질의 우수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염포산의 지형여건을 감안한 친환경 터널식 앵커리지 공법을 도입해 현대건설의 첨단 교량기술을 모두 집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같은 날 저녁에는 울산대교와 전망대의 점등식도 개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대교 개통으로 남구와 동구를 10여 분 만에 통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울산의 대소통 시대가 열렸다”며 “환경해권 관광벨트를 구축하게 돼 관광산업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7면>



지난달 29일 개최된 울산대교 준공식에서 현대건설 권오혁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Hyundai E&C connects the future of Ulsan

Korea's biggest single span suspension bridge has been unveiled in Ulsan, one of the largest industrial cities in the country, 60 month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onstruction.

Hyundai E&C held a ribbon cutting ceremony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of Ulsan Harbor Bridge and Mt. Yeompo Tunnel in Ulsan on May 29.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about 500 officials from government agencies,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to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new landmark of the industrial city.

Ulsan Harbor Bridge is a mega scale project to build the 8.38-kilometer bridge that connects Maeam-dong in Nam-gu and Ilsan-dong in Dong-gu, and the access road. The 539.8-billion-won project was started by Hyundai E&C in May 2010. The length of the central span of the bridge reaches 1,150 meters. As a single span suspension bridge, it is the third longest bridge in the world following Runyang Bridge and Jiangyin Bridge in China. Korea's primary builder used the high-strength cable (1,960 MPa class)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nd applied the PPWS method, the first of its kind countrywide, which reduced the construction period and enhanced the quality of the construction work. The eco-friendly tunnel type anchorage was used as cable anchorages in consideration of geographic conditions of Mt. Yeompo. It is the first application in the country. The bridge was well received in that many state-of-the-art technologies of Hyundai E&C were integrated in building it.

# NEWS

- 힐스테이트, 탁월한 설계디자인으로 고객 마음 사로잡는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 공사' 수주
- 창립 68주년 기념 임직원 참여 이벤트 진행

## 그룹사 소식

### 현대자동차, '현대모터스튜디오' 새 작품 공개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최초의 브랜드 체험관인 '현대모터스튜디오'에 국내 유명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에브리웨어(EVERYWARE)'의 '앙상블(ENSEMBLE)' 작품을 전시한다.

현대모터스튜디오 1층에 전시된 이번 작품은 제네시스 쿠페를 활용해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 내부를 여행한다'는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이 작품은 제네시스 쿠페를 분해한 작품 내부에 고정 카메라 8대와 카메라를 탑재한 미니 모형차 8대가 움직이면서 촬영한 영상들을 대형 스크린에 전송해 자동차 내부를 볼 수 있게 했다.

현대차는 다양한 각도에서 자동차를 살펴볼 수 있게 제작한 이번 작품으로 현대차 브랜드의 방향성인 '모던 프리미엄'을 고객들에게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5월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현대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대모터스튜디오'를 개관했다.



### 현대엔지니어링, 외국인 직원과 이색 소통 프로그램 도입

현대엔지니어링이 5월 29일 서울 계동 본사 사옥에서 외국인인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언어 교환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인 직원과 한국인 직원을 1대 1로 연결해 상호 간 문화 이해를 돕고, 외국어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총 20팀을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한국어 발표대회,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위한 계동 투어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외국인 직원과 한국인 직원 간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원활한 소통환경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부서 소식

### LH 강남 힐스테이트 준공

LH 강남 힐스테이트(강남 보금자리 A5블록)가 지난 2일 착공 33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준공됐다. LH 강남 힐스테이트는 서울 강남구 자곡로 일대에 연면적 17만9904㎡, 지하 3층~지상 18층, 총 5개동 규모에 1339세대로 이뤄졌다.

이 현장은 국제현상 설계를 통해 당선된 네덜란드 건축가의 설계 작품을 우리 회사가 실시설·기술제안한 대단지 아파트다. 박막녹형 동판 지붕, 슬라이딩 서터, 비용·일정 통합관리시스템(PMIS) 등 공동주택으로는 최초로 다양한 공법과 시스템이 적용돼 관심을 모았다.



### 연구개발본부, '2015 한마음 단합대회' 열어

연구개발본부가 지난 5월 29일 이석훈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한마음 단합대회'를 했다. 이날 연구개발본부 임직원들은 경기도 용인 인근의 죽전 CGV에서 단체로 영화를 관람한 후 실별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했다.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함께 문화 체험도 하고 즐거운 식사도 나누니 소속감과 결속력이 강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 힐스테이트, 탁월한 설계디자인으로 고객 마음 사로잡는다

## '2015 힐스테이트 스타일' 발표 주거서비스대상 설계디자인 부문 최우수상 수상

우리 회사가 힐스테이트의 설계디자인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28일 30, 40대를 겨냥한 힐스테이트의 상품 차별화 전략인 '2015 힐스테이트 스타일'을 발표하고, 최근 활기를 띠는 분양시장을 적극 공략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힐스테이트 스타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설계, 자녀의 창의력을 높이는 디자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첨단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년 내 구매 의향이 있는 30, 40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브랜드 트래킹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힐스테이트 입주자의 만족도도 별도로 평가해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셉테드(CPTED)' 인증 획득을 비롯해 알파룸을 활용한 별도의 학습공간을 설계하고, 그린스마트 시대에 대응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교육·편의' 세 가지 요소를 대폭 강화했다"며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태전'을 시작으로 향후 단지에 힐스테이트 스타일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목동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자녀방에 적용된 창의력 벽지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코너리스 가구(오른쪽).

가 설계디자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아 힐스테이트 설계디자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 단지는 세로토닌과 행복호르몬 생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입주민 감성까지 생각한 아파트라는 평가를 받았다.

## Outstanding designing of Hillstate wins heart of customers

Our company sets out to increase the designing capability of Hillstate.

As part of the all-out effort to invade the recently revived pre-sale housing market, our company revealed the 2015 Hillstate Style, a differentiation strategy targeting

customers in their 30s and 40s, on May 28.

The newly announced Hillstate Style is characterized by a variety of functions which can maximize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such as "crime-safe" designing, creativity-

boosting designs for children and a cutting-edge home network system aimed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To this end, for one month in November 2014, our company conducted a brand tracking survey

of 800 people in their 30s and 40s who live in apartment complexes and have an intention to buy an apartment unit within two years. In addition, our company assessed the satisfaction of Hillstate residents to reflect the needs of our customers.

##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 공사' 수주

우리 회사의 국내 건축공사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22일 4561억6500만원 규모(VAT 포함)의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 공사는 국내 공공부문 건축 공사 사상 최대 규모인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다. 우리 회사는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4개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제2 여객터미널·IAT(셔틀트레인)·BHS(수하물처리시설) 기능실 내부 마감, 설비·조경 공사를 수행한다. 공사기간은 28개월.

한편, 지난달 21일에는 국군재정관

리단이 발주한 687억원 규모의 '평택 화력지원마사2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고양관 광문화단지(한류월드) 복합시설용지 M1~M3 블록'을 낙찰받았다.

한류월드 개발사업은 우리 회사가 GS건설, 포스코건설과 함께 대지면적 7만7722㎡의 부지에 공동주택 2038세대, 오피스텔 280세대,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조222억원의 매출액(당사분 약 4074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 '반독점 정책' 제정으로 윤리경영 체계 강화

우리 회사가 지난달 말 윤리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반독점정책(Antitrust Policy)'을 제정·발표했다. '반독점정책'은 우리 회사가 국내외 프로젝트 수행 시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시장 할당 ▶집단 보이콧 등의 독점 금지와 공정 거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이번 반독점 정책을 발간 삼아 글로벌 수준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창립 68주년 기념 임직원 참여 이벤트 진행

우리 회사가 창립 68주년을 맞아 임직원 참여 이벤트를 진행했다.

창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사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현대건설 작품 발굴전 ▶다시 써본 입사지원서 ▶그댄 그랬지~♪ 등 3개 부문에 총 157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부문별 1등은 법무실 서라벌사원, 플랜트수주영업실 이순호 대리, R&D기획실 유국종 차장에게 각각 돌아갔다.

'현대건설 작품 발굴전'에서 25개 작품을 출품해 1등을 차지한 서라벌사원은 "남동생과 함께 8시간 동안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정부중합점사, 청계천 등 우리 회사의 역작 25개를 촬영했다"며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며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 한번 느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벤트 수상작은 지난 5일까지 계동 본사 사옥 본관 5층 프론티어홀에 전시됐다.



## PHOTO NEWS



### '사랑의 빵 만들기'로 행복을 전하세요!

지난 4일 인사실 임직원 30여 명이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은 1호선 동묘역 근처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머핀, 햄치즈롤 등 500여 개의 빵을 굽고 포장한 후 청구동 일대 결연세대와 저소득세대에 기증했다. '사랑의 빵 만들기'는 참여를 원하는 팀의 신청을 받아 오는 8월까지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된다. 문의: 총무실 02-746-2935

## '씨마크 호텔'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준공

우리 회사가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에 '씨마크 호텔(SEAMARQ Hotel)'을 준공했다. '경포대 현대호텔'을 24개월에 걸쳐 재건축한 '씨마크 호텔'은 연면적 3만9406㎡에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호텔동과 컨벤션센터, 야외공연장, 전시장, 한옥호텔 등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TX 콘크리트 패넬을 설치했으며,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의 신축 건물 분야(NC: New Construction)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착공 44개월 만에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언더스테이지'를 준공했다.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언더스테이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연면적 2963㎡, 지하 5층~지상 4층 규모로, 음악을 주제로 한 도서관과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 음악 녹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ISSUE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의 최신 뉴스를 (사보신문)에 연재합니다. 경제건설문화 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뉴스를 통해 생생한 비즈니스 이슈 및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자체 편집했음을 알립니다.

## Korea's 'kangaroo tribe' gets larger

### People in their 30s and 40s rely on parents for money, moral support

**May 26**

Many Koreans in their 20s to 40s identify themselves as "kangaroo tribesmen," a term for people who depend on their parents either financially or emotionally or both.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Jobkorea, nearly 40 percent of 3,574 respondents said they were kangaroo tribesmen. About 70 percent of that group said they were still getting financial help from their parents.

Nearly 16 percent said they "felt more peaceful after getting feedback from parents when making major decisions." Around 15 percent responded they were "neither financially nor emotionally independent" from parents.

The reasons for remaining dependent on parents included the high cost of housing(65 percent) and of living in general(64 percent). Nearly 21 percent said they "felt happier and comfortable living with parents," while nearly 21 percent responded that they "did not have the courage to be independent." Multiple answers were allowed.

In terms of demographics, 42 percent of female respondents said

they identified themselves as a kangaroo tribesmen, compared to 31 percent of male respondents. In terms of age, nearly 44 percent of people in their 20s said they were dependent on parents, while close to 34 percent of respondents in their 30s said so. The affirmative response rate in the 40s age group was 18 percent.

Despite the relatively large numbers, the general perception of dependent kangaroo tribesmen was negative, the survey sho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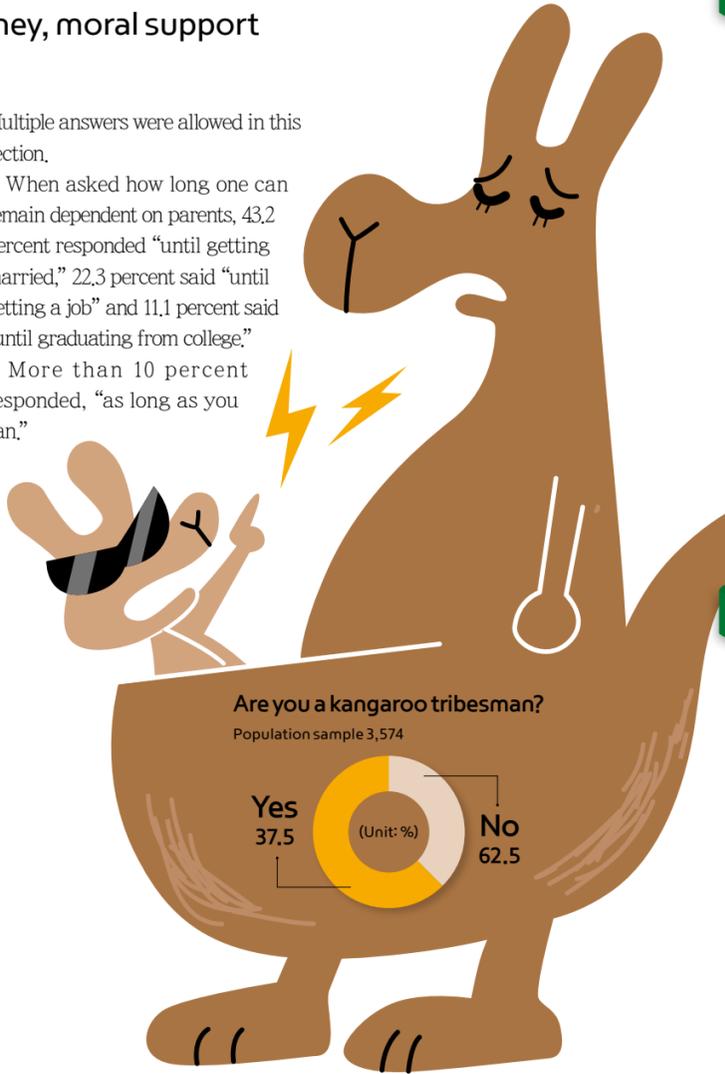
Respondents said kangaroo tribesmen who are financially dependent on their parents seemed "incompetent"(54 percent), "irresponsible"(40 percent) and "lacking in goals"(40 percent). But close to 18 percent also said they seemed "like part of a happy family," "wise"(14.4 percent), "economically sensible"(12.5 percent) and "envious"(12 percent).

When asked about kangaroo tribesmen who are emotionally dependent on parents, they said those persons seemed "immature"(65.4 percent), unstable(45 percent) and incompetent(43.7 percent). Close to 26 percent said they felt pity for them.

Multiple answers were allowed in this section.

When asked how long one can remain dependent on parents, 43.2 percent responded "until getting married," 22.3 percent said "until getting a job" and 11.1 percent said "until graduating from college."

More than 10 percent responded, "as long as you can,"



## 늘어가는 한국의 '캥거루족' 30~40대, 경제적·정신적으로 부모에게 의존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많은 수의 한국 성인들이 자신이 '캥거루족'이라고 고백했다. '캥거루족'이란 경제적·정신적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3574명의 응답자 중 약 40%가 자신이 캥거루족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약 7명은 부모에게 여전히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응답이 약 16%,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독립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약 15%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의존적인 이유를 복수응

답으로 조사한 결과, 높은 집값(65%), 생활비에 대한 부담(64%)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편하다'는 응답이 약 21%인 반면 '자립할 용기가 없다'는 응답도 21%에 가까웠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의 42%가 자신을 캥거루족이라고 대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는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20대 캥거루족의 비율이 약 44%가 가장 높았고, 30대의 약 34%, 40대의 18%가 자신이 캥거루족이라고 답변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자신을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캥거루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4%가 부모에게 경제적 으로 의존적인 캥거루족이 '무능력해 보인다'고 응답했으며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40%), '목표의식이 없어 보인다'(40%) 등의 부정적인 답변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행복한 가족으로 보인다'(약 18%), '지혜롭다'(14.4%), '절약정신이 뛰어나다'(12.5%), '부럽다'(12%)라고 대답한 응답자들도 있었다.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인 캥거루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미성숙해 보인다'(65.4%, 복수응답), '불안정해 보인다'(45%), '무능력해 보인다'

(43.7%) 순으로 답변했다. 캥거루족을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약 26%에 달했다.

한편 '언제까지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사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는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사는 것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43.2%로 가장 높았고, '취업할 때까지'(22.3%),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11.1%)가 뒤를 이었다. '가능한 한 오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답변도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 Key expressions  
affirmative: 긍정(동의)하는  
sensible: 분별 있는, 합리적인  
immature: 미숙한

## Former MERS patient describes his recovery

**June 09**

Here is an edited excerpt of the interview, which outlines the eight days the doctor spent in recovery.

**Q.** What were your symptoms?

**A.** In terms of my personal symptoms, there really isn't much [to talk about]: a bit of muscle pain, indigestion, some coughing and a meager fever just high enough to fall after taking a few pills. The muscle pain wasn't severe enough to take any painkillers. It hurt a little for about three to four days, but I got a lot better from the fifth. After a



week, I started reading.

**Q.** What was the most difficult pain to endure?

**A.** I don't know whether my case can be comparable with that of other MERS patients. I was pretty healthy before the disease and also diagnosed

pretty early, so it wasn't as tough [as people assume]. I didn't have trouble breathing.

**Q.** How are you feeling now?

**A.** I'm completely fine. I have a small cough, but I feel the same as I did before I had MERS.

**Q.** Do you have any advice to our readers?

**A.** Don't worry too much. Based on my own case, I think people can easily beat the virus if they act fast by reporting any symptoms. Society's current level of panic seems quite similar to that of the swine flu outbreak in 2009, but even then, patients were OK as long as they were treated within two days after diagnosis. As long as people aren't already chronically ill with some other kind of sickness, I think Korean medical technology is advanced enough to cure MERS patients.

###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 Picture Description 유형



**Q.** Can you describe this picture?

**SAMPLE ANSWER**

This is very interesting picture. In the picture, I can see green grass and blue sky. Maybe it's spring or summer with the green color of plants. Someone might be went picnic at park. I can know it with a picnic basket and some food. There are grapes with yellow green and black color. Also I can see a bottle of wine and a glass someone taste. Fruits and wine are on a red blanket. That's all I can see in this picture.

#### Picture Comparison 유형



**SAMPLE ANSWER**

I am glad to compare these two pictures. Both are vehicles we can find easily in our daily life. Left one is a skate board. It has four blue wheels with black body. We have to ride a skate board with standing on it and ride it on the flat road like a park. Right one is a bicycle. It has black two wheels with white body. People use this when they have to go long way which cannot go with walking or riding skate board. Also we can ride a bicycle with sitting on it and ride it on the road or mountain. I prefer a bicycle more than a skate board. Because I can ride long way with sitting on it. I can use it when I go work in the morning. It will be better than walking. Thank you.

자료 제공 : SLI 교육원(02-541-7219)

### MOVIE

## Thriller 'San Andreas' tops local box office

**June 09 :** Disaster movie "San Andreas" opened big in first place at Korean box offices over the weekend with an audience of 724,447, despite locals shying away from public places due to a recent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in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state-run Korean Film Council on Monday, the epic amassed 8 billion won (\$7.1 million) in Korea from more than 800 screens nationwide.

The movie, directed by Brad Peyton, depicts a 9.0-magnitude earthquake wiping out the western coast of the United States. Professional wrestler and action star Dwayne Johnson appears as Ray, a helicopter pilot called in for the rescue operation.



# REPORT

우리 회사는 2013년 4월 UAE 사브 해상 원유 및 가스처리시설 공사(SARB)를 시작하며 48개월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SARB 현장은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진출한 오프쇼어 프로젝트로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우리 현장 최고 (82) UAE 사브 해상 원유 및 가스처리시설 공사(SARB) 현장

# 미개척 해양플랜트 공사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다



UAE 사브 해상 원유 및 가스처리시설 공사(SARB) 모듈습 전경.

### 오프쇼어 프로젝트의 아성에 도전하다

합산 5 가스처리시설, 보로지 3 동력·간접시설 공사 등 UAE 플랜트 시장에서 위치를 공고히 해온 우리 회사는 세계 유수의 건설사를 제치고 2013년 18억 9442만 달러 규모의 UAE 사브 해상 원유 및 가스처리시설 공사(SARB) 패키지 4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우리 현장은 아부다비 북서쪽으로 120km 떨어진 지르쿠(Zirku)라는 섬과 인근 인공섬 2곳에 원유와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공사다. 하루에 원유 20만 배럴(200L·드럼 16만개 분)과 가스 3500만 입방피트(버스 약 6600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를 처리할 수 있는 지르쿠 시설과 86개 유정(油井)에서 생산된 원유를 모아 이송하는 원유 집하 배관망, 화학물질 주입 설비 등을 해상 2개의 인공섬에 시공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발주처 ADMA-OPCO (Abu Dhabi Marine Operating Company)는 UAE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인 ADNOC 그룹에 속한 해상플랜트 운영 회사로, 오프쇼어 가스 및 오일 개발 전문 회사로 명성이 높다. SARB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의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로, 우리 회사는 아부다비의 원유 생산량 확대에 기여할 초대형 해상 원유처리시설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UAE 내에서 약 30년간 지켜온 입지를 더욱 다지고 있다.

우리 현장은 주요 플랜트 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르쿠 섬에 위치해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지르쿠 섬에는 이미 건설돼 운영 중인 오일, 가스 처리시설과 군사시설만 존재하다 보니 사람이든, 건설장비든 입도 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지르쿠 섬은 허가된 지역 외에 출입이 제한된다. 섬 내 생활과 안전규정도 엄격하다. 일례로 카메라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카메라가 달린 노트북은 물론 스마트폰조차 반입되지 않는다. 섬을 둘러싼 바다에 접근조차 통제되는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현장은 직원과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해상 운송의 약조건을 극복하다

우리 현장은 자재와 작업자의 조달 여건도 까다롭다. 하루에 7000~8000명의 작업자가 동원되고 수십, 수백 번 트럭으로 자재를 실어나를 수 있는 일반 육상 플랜트 현장과 달리, 섬 안에 있는 우리 현장은 최대 35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와 자재 운송 선박 운항이 한 달에 15~20회에 불과할 정도로 제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수많은 인허가 절차와 안전규정 등이 때론 제약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듈공법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SARB 현장은 현재 총 37개의 파이프랙(Pipe rack: 배관열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선반) 모듈과 30개의 프로세스 모듈, 12개의 빌딩 모듈을 아부다비와 한국에서 제작하고 있다. 파이프랙 모듈 37개의 총 중량은 8500t, 프로세스 모듈 30개의 경우 22000t에 달하며, 한국에서부터 운송할 변전소도 5000t에 육박한다. 가장 큰 모듈은 35m×45m×20m에 무게는 1800t에 달하는데, 이 거대한 모듈을 초대형 바지선에 실어 섬으로 운송하는 작업 또한 쉽지 않다. 제작공장에서 출발해 현장에 도착 후 설치되기까지의 모든 위험과 변수를 파악하고자 시뮬레이션을 하고 날씨, 풍속, 풍향, 파고, 조수 등의 모든 기상조건을 고려한 운송계획이 승인되어야만 출항 허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현장은 다른 플랜트 현장에 없는 해상물류팀을 조직했다. 현지의 대형 모듈 전문 운송업체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송·설치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새로운 영역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다.

다가오는 15일에는 첫 4개 파이프랙 모듈을 제작 공장으로부터 출하 후 지르쿠 섬으로 해상 운송한다. 이를 현장에 설치하기까지 일련의 현장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 직원은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차석환 과장



파이프랙(Pipe rack) 모듈이 제작되고 있다.



## 모듈 제작과 운송 그리고 설치, 현장 속도 하나의 프로젝트

현재 지르쿠 섬에서는 토목작업이 한창이다. 여기저기 땅이 굴착돼 있고 모듈 기초공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프로젝트 초기 현장 모습이다. 그러나 곧 하루가 다르게 대형 구조물들이 속속 설치될 것임을 현장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4곳의 제작 공장에서 모듈이 이미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60% 이상의 공정을 보이는 파이프랙 모듈 제작장에는 32개의 거대한 모듈이 웅장하게 들어서 있고, 1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매일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지르쿠 섬 내에는 아직 배관 Spool 기계 1기조차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미 배관 자재는 90% 이상이 아부다비 내 야적장에 도착해 모듈 제작 공장으로 공급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제 곧 있을 첫 해상 운송을 기다리는 4개의 파이프랙의 모듈은 어느새 제작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고 선박과 선원, 부두, 지르쿠 섬 내 준비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점검하고 있다.

세계 플랜트 건설 시장은 공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설계와 시공, 동시 진행이라는 패스트 트랙 방식 혹은 사전제작(Pre-fabrication) 방식을 통해 공기를 단축해 왔으나,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공장 제작의 개념인 모듈공법이 확산돼 가는 추세다. SARB 프로젝트는 그 중심에서 소중한 경험과 배움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해상 운송 중인 프로젝트 모듈.

### MINI Interview 프라빌(Prabir Das) 대리 SARB 현장 서울사무소

##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진출한 오프쇼어 프로젝트”

SARB 현장은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해외 다양한 전문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회사가 핵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함께 일하다 보니 중첩되는 업무도 많고 서로 의견차이도 존재하는데 적절한 소통과 조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당사 업무가 원활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석사를 졸업한 후 2010년 현대건설에 입사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현대건설에서 전문성도 키우고 세계 곳곳에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1990년 초 제 고향

방글라데시에서 현대건설이 건설한 야무나 대교를 보고 더욱 현대건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현장은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수주한 오프쇼어 프로젝트로서 향후 본격적으로 오프쇼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현장이 어떻게 마무리되

느냐에 따라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본부의 미래 먹거리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현장 전 직원과 근로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첫 오프쇼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준공 신화를 만들어 낼 것을 약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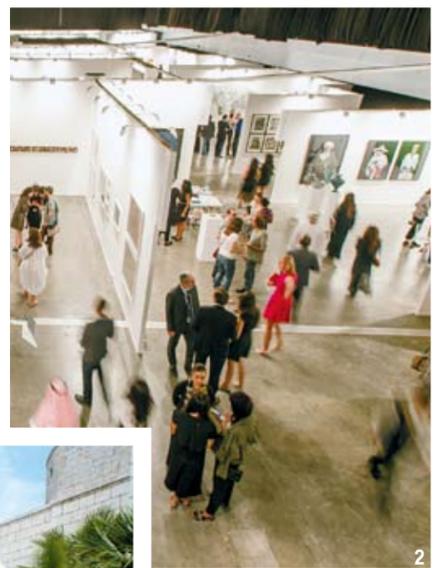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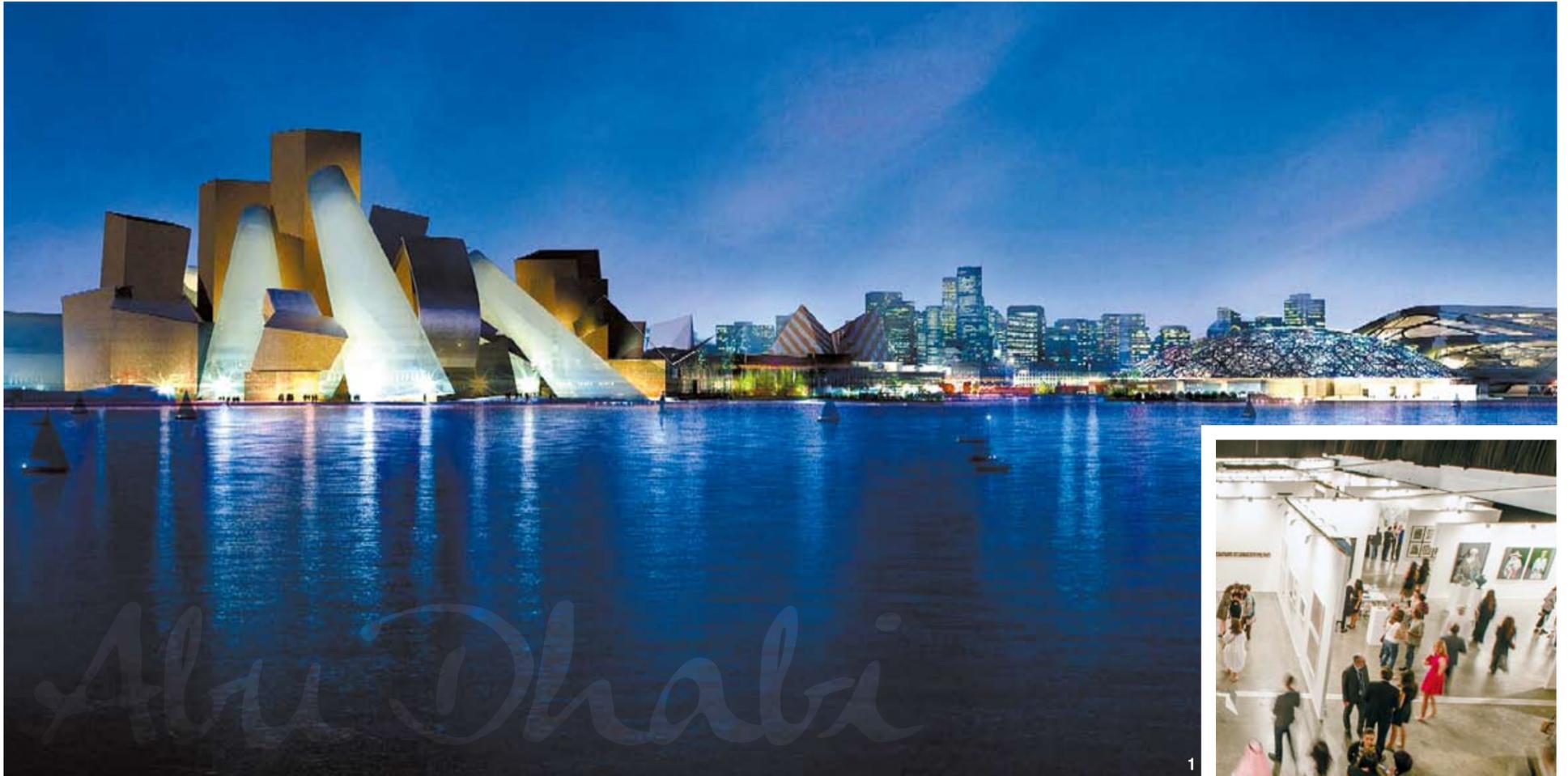
# CITY

중동에서 현대미술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깨고 막대한 오일머니로 현대미술의 보고로 거듭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세계 제일의 문화 허브를 꿈꾸는 UAE의 모든 것. 글=정일주 <월간 퍼블릭아트> 편집장



**창의도시 ①** 아부다비(Abu Dhabi) 사디얏아일랜드

## 아랍에미리트로 떠나는 현대미술 산책



“ 사디얏아일랜드에는 구겐하임 아부다비, 루브르 아부다비뿐 아니라 아트센터, 해양박물관 등 여러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

바로 지금, 현대미술의 핫 플레이스를 대라면 주저하지 않고 아랍에미리트를 꼽겠다. 2011년 ‘현대미술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아랍 현대미술이 집중적으로 주목받더니 루브르 박물관과 구겐하임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이 들어서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술에 막대한 오일머니를 투자하는 아랍에미리트에 어느 나라가 감히 대적할 수 있을까?”라고.

### 최고 브랜드 미술관들

아부다비는 UAE 면적의 87%를 차지하는 토후국이자 북동쪽 섬에 위치한 수도다. 섬과 본토가 각각 다리로 연결돼 있는데 그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 바다라기보다 한강을 건너는 느낌이다. 아부다비는 섬 하나하나 콘셉트를 살려 개발하고 있는데, ‘야스 아일랜드’는 스포츠레저, ‘알 마르야 아일랜드’는 금융·의학 테마로 한다. 그중에서 아부다비 북부 ‘사디얏 아일랜드’는 섬 전체가 미술관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사디얏 아일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스페인의 문화 전략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스페인의 낙후된 공장지대였던 빌바오에 구겐하임 박물관을 지은 뒤 도시가 탈바꿈했던 사례에서 아



이디어를 얻은 것. 실제 스페인의 구겐하임 박물관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가 구겐하임 아부다비(Guggenheim Abu Dhabi)의 설계를 맡아 그 정통성을 이었다. 최근 이곳에선 개관전 <Seeing Through Light>이 열렸는데,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동하는 18명의 작가들 중 미학적인 요소로 ‘빛’을 사용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소개돼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개관한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 또한 거장들의 명화를 모래사막으로 이동시키며 현대미술의 접전지로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다빈치의 <밀라노 귀족부인의 초상>을 비롯해 고흐의 <자화상>, 모네의 <생라자르역>,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자크 루이 다비드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앙리 마티스의 <매그놀리아가 있는 정물> 등 300점의 명화를 공개한 박물관은 중동 지역에서 유례없는 명화전을 선보였다. 프랑스 출신 세계적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루브르 아부다비는 동형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형상의 초현대식 건물로 벌써부터 화제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30년간 작품을 전시하는 조건으로 프랑스에 10억 유로(약 1조3514억원)를 지불했고, 2007년 계약 당시 ‘루브르’라는 명칭 사용권만

1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구겐하임 아부다비. 2, 3 올해 개최된 2015 아트 두바이 행사 모습.

으로 5억2000만 달러(약 5535억원)를 냈더니, 그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하다.

현재 이 섬에는 루브르뿐 아니라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퍼포밍 아트센터, 영국 대영 박물관과 협력해 짓고 있는 자에드 국립박물관, 인도 타다오가 설계한 해양박물관 등 여러 문화시설이 2017년까지 속속 개관을 앞두고 있다.

### 미술을 견인하는 행사들

유수의 미술관 못지않게 아랍에미리트를 현대미술 선진국으로 이끄는 주인공이 있으니 아트 두바이(Art Dubai), 샤르자 비엔날레(Sharjah Biennale), 아부다비 아트페어(Abu Dhabi Art Fair) 등의 행사들이다. 이 행사들은 중동·아랍의 미술시장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그중 샤르자 비엔날레는 중동·아랍의 문화와 전혀 관계가 없는 총감독을 선임해 색다른 기획들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6월 15일까지 개최되는 올 행사의 지휘봉은 한국계 미국인 주인지씨가 맡아 국내에도 대단한 이슈가 됐다. 그는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화 지도 제작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는데, 참여 작가들과 함께 샤르자라는 도시 자체를 사회·문화·지형적으로 잘 진단하고 연구해 이 도시에 꼭 맞는 현대미술을 입혔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사막

에 겨울이 찾아오는 11월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또한 중동 미술의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로 관심을 모은다. 아트페어에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아랍권 작가들의 작품은 물론 사회·종교적으로 금지됐던 문화에 대한 단상이 담긴 미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중동은 물론 유럽, 미주와 우리나라도 이 아트페어에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사디얏 아일랜드에 위치한 마라나트 알 사디얏과 UAE 파빌리온에서 진행된다.

중동이 세계 현대미술을 이끄는 신흥 리더로 부각되는 것엔 정부도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문화정보부는 샤르자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샤르자 미술관 및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샤르자 파운데이션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중동에서 현대미술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존재했던 것이 불과 몇 해 전 일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아트플레이어들은 지금 아랍에미리트로 몰려들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 컬렉터들 또한 행사 때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존 행사와 페어가 맹활약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의 크라운 프린스(Crown prince)의 배우자인 알 살라마 모암메드 빈 자에드 알 나흐얀 공주가 주도하는 ‘아트 포 올(Art for All)’이라는 현대미술 후원 기관까지 설립됐으니 이 나라의 현대미술 사랑이 어디까지 진화할지 사뭇 궁금하다.



4 구겐하임 미술관 프리 오픈 전시의 모습. 5 장 누벨이 설계한 루브르 아부다비는 동형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 FOCUS



## 세계로 뻗어가는 현대건설 기술력

# 교량 건설의 ‘최초’, ‘최고’를 만들어 나간다

### 한눈으로 보는 교량 이모저모

**사장교**  
주탑에 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이 직접 상판을 짚아당기는 형태의 다리다. 하프와 닮은꼴. 국내 최초의 사장교는 우리 회사가 1983년 건설한 진도 연륙교(진도대교)다. 우리 회사는 콘크리트 사장교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대동화명대교를 건설하며 20년 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콘크리트 사장교 방식을 다시 도입해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했다.

**현수교**  
현수교는 ‘매단 다리’라는 뜻으로, 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잇는 구름다리(출렁다리)를 연상하면 쉽다. 주탑과 주탑 사이 굽은 케이블을 늘어뜨리고, 굽은 케이블과 수직으로 연결된 행거가 상판을 매달고 있는 형태다. 교량 중 설계-시공이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회사는 1973년 국내 첫 번째 현수교이자 장대교량인 남해대교를 완공했다.

**아치교**  
아치 구조를 적용한 교량이 다. 곡선의 아치가 주위 경

관과 조화를 이뤄 외관이 수려하다. 아치교는 예로부터 널리 이용돼 왔는데, 전남 순천시에 있는 선암사 승선교에서 볼 수 있듯 터널식 아치를 만들어 다리를 쌓았다. 일반 거대교에 비해 경간장을 보다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회사가 건설한 주요 아치교로는 서강대교와 구리암사대교가 있다. 이 두 교량은 대신 일괄 가설공법을 사용해 화제를 모았다.

**장대교량**  
장대교량은 다리의 총 연장이 1000m를 넘는 교량을 뜻한다. 조장대교량이란 보통 중앙 경간장 3km 이상의 현수교와 중앙 경간장 1.5km 이상의 사장교를 말한다.

**45일 만에 완성한 148m 복제교**  
148m에 달하는 교량을 한 달 만에 세울 수 있을까? 답은 Yes. 1971년 우리 회사는 3개 건설사와 함께 서울-판문점 간 40km를 45일 만에 4차로 고속화도로로 건설하는 통일로 공사를 끝냈다. 정부가 남북적십자회담 북한 관계자의 방문에 맞춰 공사를 끝내달라고 요청했던 것. 우리 회사는 가장 난공사로 꼽힌 복제교 가설 역시 30일 만에 교각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45일 만에 완성했다.

# Ulsan Grand Bridge

### 한국 장대교량 건설 시대를 열다

우리 회사 교량 공사의 역사는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교량을 복구하는 사업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리 회사는 한국전쟁 때 폭파된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를 1956년 수주해 58년 완전 복구하면서 국내 건설업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65년에는 **양화대교**(당시 제2한강교)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국내 기술로 건설하고 **한남대교**, **잠실대교**, **성산대교** 등 한강 교량 대부분의 공사를 맡으며 교량 기술을 축적해 나갔다.

특히 73년 국내 최초의 장대교량이자 현수교인 **남해대교**를 준공하며 국내 교량 건설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남해대교는 전체 길이 660m, 교각 사이 간격이 440m로, 당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국내 최초의 사장교 역시 우리 회사의 기술로 만들어졌다. 80년부터 83년까지 해남군 문내면과 진도군 군내면을 잇는 484m의 강상형 사장교인 **진도 연륙교**(진도대교)를 건설한 것. 진도 연륙교 공사는 81년 말 말레이시아 **페낭대교**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미 미국 알래스카에서 폭설을 헤치고 **여리게인교**를 시공한 바 있는 우리 회사는 프랑스 캥콩농 베르나, 일본의 마루베니, 독일의 스트라버그 등 경쟁한 건설사들을 제치고 페낭대교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회사는 착공 38개월 만인 85년 8월 총연장 7958m, 폭 19.5m의 4차로 도로가 지나는 페낭대교를 완공했다. 당시 페낭대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다리로, 86년 미국 건설링엔지니어링협회가 주관한 제16차 연례 엔지니어링 우수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페낭대교의 성공적인 준공은 86년 캐나다 **스카이 교량** 공사 수주로 이어졌다. 94년에는 방글라데시 최대의 치수사업 중 하나인 **자무나 교량**공사를 수주해 98년 총연장 4.8km, 폭 18.5m 규모에 진도 7.0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교량을 완성해냈다.

한편, 우리 회사는 90년대 **서강대교** 건설공사를 수행하며 국내 교량 공사에서도 확고한 우위를 지켜나갔다. 서강대교는 육상에서 경교를 제작해 수상으로 운반-설치하는 대신 일괄 가설공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을 비롯해 제레시 동바리 공법(FSM)과 연속압출공법(ILLM), 스틸 박스(Steel Box) 교량 공법, 날센 아치교 공법 등 최신 공법을 총동원해 화제를 모았다. 이와 함께 1994년 10월 봉곡진 **성수대교**의 복구공사를 맡아 ‘낙교방지턱’을 설치하고 내진 설계-하중 내구력을 1등급으로 개선시켜 국민의 슬픔까지도 위로했다.

### 콘크리트 사장교 분야 독보적인 기술 보유

2000년대 들어 우리 회사는 그동안 축적한 교량 건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오고 있다. **마창대교**는 우리 회사가 민간기업 최초로 사업을 제안해 시공한 장대교량이다. 우리 회사는 프랑스 브이그(Bouygues)와 50:50으로 공동 투자해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한 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2008년 6월 준공했다.

2012년 7월 준공한 **대동화명대교**는 우리 회사가 콘크리트 사장교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공사로 꼽힌다. 콘크리트 사장교는 교량 상판을 강재가 아닌 콘크리트로 시공하

는 방식, 공사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울림피대교와 팔당대교 시공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국내에서는 20여 년 동안 시도되지 않았다. 당시 우리 회사는 발주처를 설득해 콘크리트 사장교 방식으로 시공해 우리나라 교량 기술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대부분을 준공한 바 있는 우리 회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과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을 연결하는 31번째 한강 교량인 **구리암사대교**를 준공했다. 경간장이 180m에 이르는 구리암사대교는 3경간 연속 중로 아치교로,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인 대신 일괄 가설공법을 비롯해 환경오염 없이 수중 공사가 가능한 강재 케이스 튜브 가물막이 공법을 채택했다. 구리암사대교는 지난해 토목건축기술대상에서 토목시설물 도로교통시설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세계 세 번째 긴 단경간 현수교, 울산대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현장 직원들

지난달 29일 준공식을 갖고, 지난 1일 개통한 울산대교는 주탑 간 거리가 1150m에 달해 중국 룡양대교

와 장진대교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긴 단경간 현수교로 기록됐다.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동에서 동구 일산동을 잇는 총연장 8.38km의 울산대교는 우리 회사의 교량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동에서 동구 일산동을 잇는 총연장 8.38km의 울산대교는 우리 회사의 교량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 한국전쟁 복구공사 시작으로 국내 최초 사장교·현수교 건설... 세계 장대교량 강자로 자리매김

우리 회사가 1960MPa(메가파스칼)의 PPWS(조립식 평행선 스트랜드) 케이블이 사용됐다. 교량 건설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초고강도 케이블. 우리 회사는 2009년부터 건

설교용 R&D 혁신사업인 ‘초장대교량사업단’에 참여해 현대스틸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1960MPa PPWS 케이블을 개발해 2012년 상용화에 성공했다. PPWS 가설용 핵심 장비도 2013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열포산 급경사 지역에 설치된 교량 중점부의 앵커리지(Anchorage) 역시 국내 최초로 타설식 앵커리지 공법을 적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다.

### 세계 장대교량의 새 역사를 쓰다

최근 우리 회사는 **터키 보스포루스 제3대교와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교량, 칠레 차카오 교량** 등 세계에서 발주된 굵직한 교량 공사를 수주해 화제를 모았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터키 보스포루스 제3대교는 세계 최초의 사장교-현수교 복합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총연장 2164m, 주탑 간 거리 1408m로, 올해 말 완공 후에는 사장교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 철도교로는 세계 최장의 경간장을 가진 교량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주탑 높이는 322m. 사장교와 현수교를 통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교폭 역시 58.5m로 중앙 경간 내측 주탑 11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넓다. 특히 1960MPa의 사장 케이블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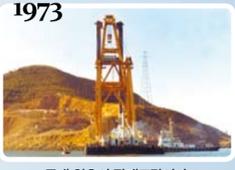
이 밖에 우리 회사는 2012년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교량 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2014년 칠레 차카오 교량 공사 수주에 성공하는 등 세계 장대교량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사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58 우리 회사 교량 공사의 시작,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



1965 설계부터 시공까지 국내 기술로 건설된 양화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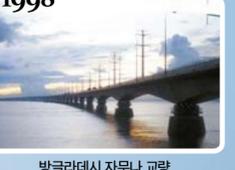
1973 국내 최초의 장대교량이자 현수교, 남해대교



1983 국내 최초의 사장교, 진도 연륙교



1985 말레이시아 페낭대교



1998 방글라데시 자무나 교량



2012 콘크리트 사장교 방식을 본격 도입한 대동화명대교



2015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구리암사대교

우리 회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단경간 현수교인 울산대교를 준공하고 지난달 29일 준공식을 했다. 국내 교량 건설의 역사를 새롭게 쓴 울산대교 준공을 기념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 건설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우리 회사의 교량 기술력을 살펴본다. 글=임영현 / 사진=송성훈

### MINI Interview

###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 새로운 역작을 만듭니다”

강효중 부장대우(칠레 차카오 교량 공사 현장 공사책임자)

교량 건설은 고난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장의 전문 인력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 우리 회사에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교량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다. 1991년 7월 입사해 16년이라는 세월을 교량 건설 현장에서 보낸 강효중 부장대우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현재 남미 최초의 현수교인 칠레 차카오 교량의 공사책임자로 현장 관리와 시공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 국내의 6개 교량 공사 참여

우리 회사의 방글라데시 첫 진출 프로젝트인 자무나 교량 현장을 시작으로 인도 아루나 교량, 남향대교, 대동화명대교, 인도 참발교 현장을 거쳐 지난해 3월 칠레 차카오 교량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교량 현장이네요(웃음). 토목의 꽃이 교량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토목기술자라면 교량 건설에 참여하고 싶어 할 텐데요, 운 좋게도 교량 현장으로 계속 발령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교량 공사의 특성이 있다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일 겁니다. 교량이 새롭게 건설된 것만으로도 그 지역이 주목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관광 활성화 효과까지 거둘 수 있거든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은 매번 난관에 봉착하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교량을 지으며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더욱 힘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 대동화명대교 현장에서의 아찔했던 순간

2007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5년 가까이 근무했던 대동화명대교 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사 초기부터 막바지까지 참여했고, 공사책임자로 처음으로 일하게 된 현장이었기 때문이죠. 수상 작업부터 60m 이상의 고소 작업, 스틸 박스(Steel Box) 거치까지 위험 작업이 산재해 있었지만 인명사고 없이 무재해 준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주탑 기초 공사를 위해 새롭게 고안한 가물막이 공법을 적용했는데, 원형 가물막이 설치 후 내부 굴착을 진행할 때 가시실 하단부와 기초 바닥면에서 지하수가 용출되는 파이핑(Piping)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시실 붕괴는 물론 인명사고, 공정 지연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초기 대처가 성공적이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반을 꾸려 보완 대책을 수립·적용한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가물막이 공법은 나중에 특허 등록까지 이뤄졌습니다.

### 남미 최초 현수교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

칠레 차카오 교량 공사는 우리 회사가 칠레 건설시장에 첫 진출한 프로젝트입니다. 칠레 본토와 칠레에 섬을 연결하는 총연장 2,75km의 3주탑 현수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구 반대편 칠레까지 와서 교량 공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웃음). 한국의 기술, 그동안 우리 회사가 축적해 온 교량 건설 노하우로 남미 최초의 현수교를 시공한다는 데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교량 건설 기술력은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선배님들의 도전정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선배님들께 배워서 따르고 있고요. 이번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 회사의 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레 차카오 교량 공사 현장은 5월 말 기준 71% 공정을 완료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작업 비자를 통해 해상 지원조사 작업을 하는 모습.



# HARMONY

팀을 구성할 때 중요한 것은 유능한 사람을 모으는 일이다. 그러나 팀원이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목표 이상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보신문)에서는 지난 2월 새롭게 꾸려진 전력설계지원팀을 만나 이들의 팀워크에 대해 들어봤다. 글=박현희 / 사진=송성훈



**우리 팀 최고 ⑫ 전력설계지원팀**

## 함께 웃고 공부하며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꿈꾸다

장성민 과장, 장태윤 사원, 김태경 대리, 김현덕 부장대우, 양경호 대리, 김청수 대리, 유석영 사원, 차상근 사원, 황정기 과장, 문광현 팀장, 최관우 차장(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햇살 좋은 날 전력설계지원팀을 서울 계동 본사 인근 원서공원에서 만났다. 수령 200년이 넘는 회화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그들의 얼굴은 6월의 화사한 날씨만큼이나 해사하다. 특히 이 회화나무는 1983년 계동 본사를 건립한 후부터 우리 회사 보호수로 자리 잡은 의미 깊은 나무다.

“신생 팀이고 남자들로만 구성돼 있다 보니 평일 낮에 공원에 둘러앉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인터뷰나마 함께하니 참 좋네요. 우리 회사와 인연이 많은 나무와 함께하니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팀원들과 종종 나와야겠습니다(웃음).” **문광현 팀장**

### 사업본부 내 ‘설계 검문소’

우리 회사는 전력 기술 입찰 시 설계 사양을 검토하고, 물량을 최적화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자 올 2월 전력설계지원팀을 구성했다. “전력설계지원팀이 신설된 후로는 입찰 설계의 최적화와 적정성을 검증하고, 입찰 물량이 타당하지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지를 검토해요. 공사 수행 시 설계회사를 관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우리 팀의 과제죠.” **문광현 팀장**

입찰서 사양 검토 ▶엔지니어링 회사와 VE(Value Engineering)를 통한 최적의 설계 도출 ▶입찰 금액 견적을 위한 기술 사양서 검토 ▶설계 성과물 적정성 검토를 통한 최적화 물량 도출 ▶기준에 실행한 프로젝트의 물량 데이터 측정과 성공·실패 사례 적용 ▶설계 표준화를 위한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In-House Data Base) 축적 등이 팀의 주 업무다. 전력설계지원팀은 전력사업 입찰 경쟁력에 일조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적합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꼼꼼히 따져보는데 주어진 시간보다 봐야 할 문서가 많아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원가 절감에 키포인트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요.” **황정기 과장**

“과장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저는 전력설계지원팀을 ‘사업본부 내 검문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엔지니어링 회사의 설계 및 물량에 대한 검토를 사업수행실과 우리 팀에서 더블 체크하다 보니 이전보다 더 경쟁력 있는 입찰 설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됐거든요.” **차상근 사원**

“입찰이 마무리된 사업이 없어 뚜렷한 결과물이 아직 없지만, 관여한 입찰 건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회사로부터 받은 설계 자료를 검토한 후 최적화된 결과를 입찰 업무에 적용하니 경쟁력 있는 입찰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팀이 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이는 만큼 우리 팀의 성과가 기대됩니다(웃음).” **김현덕 부장대우**

### 스터디 활동으로 개인 역량 UP

현재 전력설계지원팀은 발전플랜트에 필요한 토목·전기·건축·기계·배관 등 다양한 직군의 인원이 근무 중이다. 모든 분야의 담당자가 있어 유관 부서와 별도의 협의 없이 빠

르게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팀의 특징이다.

“발전소 현장은 특히 모든 분야가 연계돼 있어요. 예를 들어 기계 사양이 변경되면 토목, 건축, 배관 등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죠. 팀 내에 각 분야의 담당자가 모두 있다 보니 공중분별 신속한 검토가 가능하답니다.” **최관우 차장**

“토목과 전기 담당 팀원들은 시공 및 설계 경험이 풍부한 편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사에서 작성한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짚으며 경쟁력 있는 설계 성과물을 도출하고 있죠. 기계 담당 직원은 엔지니어링 코디네이션이 주 업무인 기술공무를 하며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요.” **문광현 팀장**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찰 업무에 있어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가 베네수엘라 페트로브 발전소 기본 설계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간 경쟁력 있는 설계를 유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의 인원이 해당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팀의 긍정적인 미래를 보고 있어요.” **김현덕 부장대우**

전력설계지원팀은 개인 역량 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지난 4월 초에 있었던 팀 세미나 이후에는 매일 한 사람씩 주제를 정해 강의하는 형식으로 팀 내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이는 타 공종의 기술 사항까지도 습득할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팀장님께서도 개인 역량을 강화하려고 늘 강조하세요. 사원이라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팀 내 교육을 통해 선배님들의 귀한 경험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강의를 진행할 때가 있는데요, 강의를 위해 자료를 찾아 보면 몰랐던 전문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차상근 사원**

“교육으로 공구별 업무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발전소 기본설계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강의할 계획이죠. 우리 팀은 엔지니어링 회사에 의존했던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본인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회사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정기 과장**

### 전력 설계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

전력설계지원팀의 팀 구호는 ‘Harmony’이다. 팀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 전력설계지원팀은 직급에 상관없이 질의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테마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져요. 4월에는 ‘팀 예체능’이란 주제로 탁구대회를 했죠. 리그전을 통해 내기를 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했는데, 정형화된 회식이 아니어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5월에는 입찰에 매진하느라 테마 미팅을 갖지 못했지만, 6월에는 영화를 함께 보고 소감을 나눌 계획이에요.” **양경호 대리**

6개월차 신생 팀이지만 단단한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는 전력설계지원팀의 포부는 그 어느 팀보다 당차다. 전력사업본부 내 ‘뇌섹남(뇌가 섹시한 남자의 줄임말)’으로서 최고의 전문가 조직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께 할말이 있습니다. 입찰 설계에 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현장 지식이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설계지원팀은 EPC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사 수행 시 설계 관리 및 상세설계까지 할 수 있는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력설계지원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웃음).” **문광현 팀장**

현장에서 쌓은 수년간의 노하우가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광현 팀장



“우리는 전력설계지원팀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팀원들.

# VIEW

## 생각의 좌표

# 세상의 98%는 개똥?

### 기자회견에서 생긴 일

프랭크 게리(Frank Gehry)라는 건축가를 아시는지 모르겠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커상까지 받았으니 꽤 유명한 분이다.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디즈니 콘서트홀 등이 그의 대표 작품이다. 그의 작업을 사진에서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두 구겨진 종이장이 바람에 펄럭이는 느낌의 건물이 대부분이다. 아무튼 그런 특별한 감수성을 전달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한눈에 척 봐도 비싸 보이는 그런 건물들이다.

그런 그가 올 초 스페인 어느 도시의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노발대발했다. 기자의 질문은 이랬다.

“당신 작품은 너무 호화스러운 거 아니가요?” 호화스러워 보이는 건물을 두고 호화스러운 거 아니냐

는 질문을 던지는 기자의 마음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었던 흥길동의 마음과 같았을 터인데, 듣는 노 건축가는 기분이 많이 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좀 길지만, 열 받은 노장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대로 옮겨 본다.

“이야기할 것이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짓고 디자인하는 모든 것의 98%는 개똥(shit)과 같다. 디자인 감각은 물론 인간성에 대한 존중이나 기타 어떠한 생각도 들어 있지 않다. 가끔 소수의 사람만이 특별하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기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나는 일감을 구걸하지 않는다. 나는 홍보 담당자도 두고 있지 않다. 나는 누가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건축 예술을 존경하는 고객과 함께 작업한다. 따라서 이처럼 바보 같은 질문은 삼가기 바란다.” 그는 이 같은 대답과 함께 가운데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혹시 그의 가운데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글에서 ‘Frank Gehry’라고 검색하고 이미지 보기 버튼을 누르시도록.

### 세상은 모두 똥투성이?

기사를 읽고 처음에는 가운데손가락질까지 당한 기자가 참 무안했겠다 싶었으나 며칠 후 왜 하필 99%가 아닌 98%라고 했을까 궁금해졌다. 99%라고 그러면 ‘노인네가 너무 박하네’ 하는 말이라도 들을까 봐 그랬던 걸까. 아무튼 그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다.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면 게리가 말한

98%의 건물들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디자인 감각은 물론 인간성에 대한 존중이나 어떤 생각도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 많다. 그러니 우리는 개똥(shit)에 둘러싸여 사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위가 온통 똥투성이이다. 그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별안간 우리 환경이 세계 2% 범위 안으로 쏙 들어가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똥들’ 사이에서 ‘똥똥’이 오를 상태로 살아야 하는 건가(쓰고 보니 좀 그렇네요)? 그런데 왜 상황이 심각해 보이지 않는 걸까? 우리 환경이 1.9%나 2.1% 언저리에 있기 때문일까? 어쩌면 여기에는 우리네 복잡한 인생처럼 주변의 건축 환경 역시 간단히 똥이라고 말해버릴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1+1=2’가 되는 숫자의 법칙과 다른 ‘똥+똥=큰 똥’이라는 셈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배치의 효과라고 부를 만한 것들.

### 배치의 효과

배치는 사물, 대상을 어떻게 놓을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작업이다. 대상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대상이 만들어 내는 관계에 주목한다. 그러다 보니 세상 모든 것은 어떤 관계망 속에 놓이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생긴다. 똥이 원래부터 똥이 아니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보석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올봄의 일이다. 지인을 만나기 위해 어느 지하철역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참 이상했다. 에스컬레이터를 올라

는 사람들의 얼굴이 한결같이 밝아지더라. 심지어 어느 여학생은 환한 미소까지 지었다. 보통 지하철을 올라오면서 보이는 풍경이란 빌딩이거나 지나는 차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때는 봄바람이 살랑 불기 시작한 4월이었고, 지하철 입구 앞에는 1년에 단 2주 정도를 숨사탕처럼 풍성해지는 하얀 벚꽃이 만개해 있었던 것이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그 벚꽃 풍경을 향해 열심히 사람들을 올려 보내고 있었다. 대단할 것 없는 꽃나무와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지하철 입구지만, 1년 중 특정한 시기, 적당한 거리와 방향을 유지하자 별안간 사람들이 미소 짓는 특별한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배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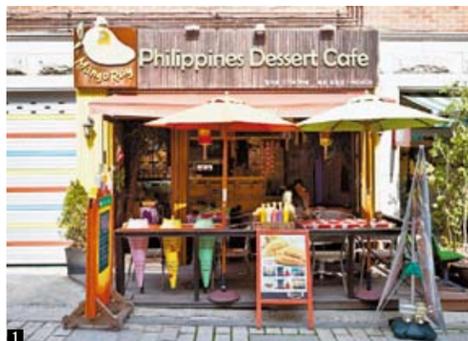
게리 선생은 세상의 2%밖에 없는 건물에 대해 안타까워했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을 모두 명품 브랜드로 채울 수는 없다. 주변의 하찮은 것들로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그 가능성은 어떤 배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겨날 수 있다. 그러니 ‘똥투성이 세상’에 좌절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똥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죄송하다. 개똥도 약에 쓸라만- 아, 그만하겠습니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차현호 건축가



## 계동 산책 더위 날려줄 ‘달콤’ 망고 디저트



1 일북달콤 이국적인 인테리어가 특징인 ‘망고 레이’ 전경과 내부. 2 고소한 카야토스트. 3 인기 메뉴 중 하나인 스노 망고 플랫.

### 망고 레이(Mango Ray) 북촌 계동점

제주도에서 유명해진 필리핀 디저트 카페 ‘망고 레이’가 지난해 중 앙고등학교 인근 계동길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필리핀 카라바오에서 항공편으로 공수한 얼리지 않은 생망고를 주재료로 한 달콤한 디저트를 만날 수 있다. 글=임영현 / 사진=송성훈

요즘 주목받는 과일을 꼽으라면 단연 망고다. ‘망고 레이’ 북촌 계동점은 망고가 맛있기로 소문난 필리핀 카라바오의 생망고로 만든 디저트를 판매한다. 카라바오에서 생산된 얼리지 않은 생망고를 주 1~2회 항공편으로 배송받아 사용한다. 지난해 오픈했지만 일본 맛집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 일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다. 북촌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중국 고객들도 늘었다고 한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카라바오 생망고 셰이크’와 ‘스노 망고 플랫’이다. 생망고

2개를 갈아 만든 ‘카라바오 생망고 셰이크’는 부드러운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생망고 조각이 수북이 올려진 ‘스노 망고 플랫’은 느끼하지 않은 크림과 생망고가 어우러져 보다 풍부한 달콤함을 선사한다. 코코넛 하얀 속살을 갈아 연유를 섞은 ‘스페셜 부코 셰이크’는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출출하다면 바삭 구운 식빵에 카야잼을 바른 카야토스트를 추천한다.

망고는 바나나처럼 껍질이 녹색일 때 수확한다. 이 상태의 망고를 그린 망고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랗게 변한다. 망고 도착일에 맞춰 이곳을 방문한다면 새콤한 ‘그린 망고 셰이크’를 맛볼 수 있다.



이곳은 필리핀 카라바오산 생망고를 주재료로 한 다양한 필리핀 디저트를 선보인다.

주소 종로구 계동길 112  
문의 02-992-0178  
영업시간 오전9시 30분~오후 9시  
(첫째·셋째 주 월요일 휴무)

🏠 **HOT CLIP HILLSTATE NOW!**

###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맞춤형 아파트

##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 분양



중, 초·고교, 명지고 등이 가까워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편리한 교통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지하철 6호선 새철역이 도보 거리에 있고, 3호선 녹번역, 6호선 응암역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립 은평청소년 수련관 내 체육시설과 이마트, 서부병원, 대림시장, 응암시장 등이 가깝다. 단지 인근 백련산에는 1만9500㎡의 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 또한 누릴 수 있다.

건본주택은 현장을 볼 수 있는 응암초 뒤편(가좌로 6길 34-9)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 **분양 문의 02-302-7203**

우리 회사가 서울 은평구 응암동 620-1번지 일대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를 분양 중이다.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는 지하 4층~지상 19층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63세대며 이중 일반분양분은 521세대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서울에서 보기 힘든 1410만원대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돼 있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적용된다.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는 초·중·고교 모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 ‘교육맞춤형 아파트’로 꼽힌다. 이 단지는 응암초교, 연은초교와 함께 사립학교인 명지초, 중앙초를 비롯해 중앙중, 명지

힐스테이트 분양 현황				
구분	현장명	총세대	분양 문의	
서울/수도권	고덕래미안	3658	02-554-5574	
	목동	1081	02-2061-0277	
	강서	2603	02-2698-7400	
	태전	3146	031-731-1400	
	인천 검단 6차	454	1566-4452	
	남양주 퇴계원	1076	031-563-8888	
	백련산 4차	963	02-302-7203	
지방	당진	915	1899-0058	
	창원 검계 4차	1665	055-282-5005	
	해운대 위브	2369	051-742-5116	



# PEOPLE

지난 2일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단아한 얼굴의 뮤지컬 배우 최수진을 만났다. 동그란 눈을 찡긍하며 인사한 후 자리에 앉은 그녀는 주어진 질문에 명료하면서도 소탈하게 답했다. 그녀의 무대 위 모습이 궁금해진 이유다. 글=박현희 / 사진=송성훈

뮤지컬 배우 최수진은 뮤지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예다. 2009년 뮤지컬 <살인마 잭>으로 데뷔한 이래 <궁> <겨울연가> <김종욱 찾기> <헤이, 자나!> <벽을 뚫는 남자> 등 다수의 뮤지컬에 출연한 그녀는 올해 <울속업> <쓰루더더> <사의찬미>까지 연달아 세 작품을 소화해 내며 관객들과 숨 가쁘게 소통하고 있다.

사실 최수진은 걸 그룹 소녀시대 수영의 친언니로 먼저 유명해졌다. 우애 깊은 자매 사이라 여동생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뮤지컬 배우로서 실력으로 먼저 이름을 알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그녀다.

“눈 뜨자마자 연습실에 가고, 집에서는 잠만 자는 생활을 오랫동안 반복했어요. 다른 배우들에 비해 데뷔는 빨리 한 편이지만, 그 후에도 수차례 오디션에서 떨어졌죠. 노력 없이는 지금까지 배우 활동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할 거고요.”

## # 다시 보고 싶은 배우 되고 싶어

Q 뮤지컬 <울속업> <쓰루더더>에서부터 최근 오른 <사의찬미>까지 연달아 세 작품을 했어요. 체력적으로 힘든진 않아요?

데뷔 후 매년 세 작품 이상을 해왔어요. 일년에 네 작품하면 정말 많이 했다고 말하는데, 이젠 적응이 됐는지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안 하면 오히려 몸이 쭉신다니깐요(웃음).

Q 평소 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감사하게도 아직은 목이 쉰 적이 없어요. <쓰루더더>에서는 높은 음으로 쉬지 않고 노래해야 했는데, 목에 무리가 가기보다는 단련이 되는 느낌을 받았죠. 무엇보다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잘 자는 게 최고죠.

Q 7일에 막을 내리는 <쓰루더더>와 6일에 오픈하는 <사의찬미>는 공연 일정이 맞물려 있어요. 착하고 다정다감한 <쓰루더더>의 살롯, 활발하고 자유분방한 <사의찬미>의 윤심덕은 이상을 좇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잖아요. 두 캐릭터를 함께 연기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살롯에는 완벽하게 적응이 됐어요. 하지만 윤심덕이란 캐릭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요. 두 여자 모두 자신에게 닮친 어려움을 스스로 타파하려 하지만 살롯에 비해 윤심덕은 너무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해 가려는 두 캐릭터를 연기하며 배우는 점이 많아요. 어려운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했죠.

Q 2009년 <살인마 잭>에서 글로리아라는 배역으로 데뷔했어요. 당시 경쟁한 선배들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떨리진 않았나요?

워낙 대선배님들이라 보니 제가 그 기에 지레 놀린 것 같아요. 유준상 선배님은 제 상대역이 아니었음에도 “내가 상대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껏 화풀이하고 때리고 다 해 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영기 선배님은 “걸음걸이부터 가르쳐 줄 테니 잘 봐”라고 하셨고요.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극을 사랑하고, 후배를 야기는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저 역시 후배들에게 그런 선배가 되고 싶어요.

Q 한 인터뷰에서 “다시 또 보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극 자체를 즐기는 분도 있지만, 요즘엔 배우를 보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최수진이 나오면 믿고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거창하게 ‘티켓 파워’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객들이 ‘이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이라면 갈 만해’ ‘작품은 약하지만 이 배우의 노래나 연기가 볼 만해’라는 생각으로 극장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운 음색의 뮤지컬 배우 최수진

## # 걸 그룹 여동생 큰 힘 돼

Q 활동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집에서 힘든 걸 티 내지 않으려고 해도 가족 앞에선 어쩔 수 없이 드러나더라고요. 가족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의 짐을 확실하게 털어내는 것 같아요.

Q 자매가 모두 무대에서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서로의 무대에 대해 조언해 주기도 하나요?

수영이는 관객 입장에서, 저는 팬이나 대중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곤 해요. 물론 저는 소녀시대 멤버 중 제 동생이 제일 예쁘고, 잘 났으면 하지만 그룹 활동은 조화로운 게 중요하잖아요. 그에 대한 말을 주고받는 거죠. 동생은 제가 출연하는 작품이라면 한 편당 두 번 이상 봐요. ‘상대 배역에 따라 언니가 이렇게 보인다’ ‘관객들의 반응은 이렇다’는 식의 이야기를 꼼꼼히 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사의찬미>는 소녀시대 활동 기간과 겹쳐 두 번은 못 볼 수도 있지만, 한 번은 꼭 볼 것 같아요(웃음).

Q 무대 밖의 수진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밝고 긍정적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빠져 우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죠. 기분이 나쁘면 그 원인을 찾아 빨리 해소하려고 노력해요.

Q 현대건설 임직원에게 뮤지컬을 잘 즐길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준다면?

제가 만일 뮤지컬을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이라면 티켓 가격에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뮤지컬 작품의 종류는 무궁무진해요. 기분에 따라 골라 볼 수 있을 정도로요. 특히 대학로에는 저렴한 공연도 많고, 할인하는 공연도 많으니까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될 거예요(웃음).

Q 앞으로의 계획과 임직원에게 한마디.

<사의찬미>가 끝난 후에는 당분간 여행을 다닐 계획이에요. 잠시 휴식을 가진 후 올해가 가기 전에 한두 작품으로 더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일부터 시작하는 뮤지컬 <사의찬미>는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작품이에요. 현대건설 계동 분사와도 가까운 대학로에서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공연이 아니어도 좋으니,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러 대학로 뮤지컬 공연장에 많이 찾아와 주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 “무대 위에서는 순간 자신감 없는 나는 사라진다”

찾아 와주신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Q 어릴 적 꿈이 가수였다고요. 뮤지컬 배우로 영역을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중학생 때까지는 노래가 막연히 좋아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입학 후 영화를 자주 보면서 연기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됐고, 자연히 노래와 연기를 함께 하는 뮤지컬 배우로 진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Q 뮤지컬 배우가 천직임을 느끼나요?

매번 어려워요. ‘나는 또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좌절감을 매번 느끼죠.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해요. 무대 위에서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연기하지만 막이 끝나면 다시 또 작아지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른 배우들도 같은 감

정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뮤지컬 배우는 정말 내면이 강해야 하는,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더 매달리게 되죠. ‘여기서 그만할까, 포기할까?’라는 순간도 진짜 많은데 생각뿐이에요. 어느 순간 또 무대 위에서 저를 발견하게거든요.

Q 언제 희열을 느끼나요?

핀 조명 받고 혼자 노래할 때, 열정을 다하고 있음을 느낄 때, 상대 배우와 케미스트리가 느껴질 정도로 합이 맞을 때. 반면에 가장 두려운 순간은 공연 시작 직전이에요.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또 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 하면 또 하고 싶어요. 무대 오르기 30초 전까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만둘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가 막 상 마이 오르면 캐릭터에 푹 젖어 들어요.



인터뷰에 동행한 김지훈 대리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액화 정제 시설 서울사무소)가 최수진과 환하게 웃고 있다.



뮤지컬 <사의찬미>는 1926년 8월 4일 극작가 김우진과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의 현해탄 동반 투신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매혹적인 라이브 현악 삼중주와 세련된 무대미술이 잘 어우러진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이다. 공연은 대학로 DCF대명문화공간 1관 비발디파크홀에서 9월 6일까지 열린다.

문의 02-766-7667

# CULTURE

최근 한 인터넷 업체의 다이어트 관련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답했다. 또한 여름을 앞두고 가장 신경쓰이는 신체 부위 1위로는 남성의 79%가 뱃살을 꼽았다. 일하는 시간과 즐기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도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늘릴 수 있는 사무실 운동법을 소개한다. 글=성열규 (Men's Health) 에디터 / 일러스트 및 사진=(Men's Health) 제공



## 여름 몸매를 위한 사무실 운동법 6가지

# 사무실이 곧 헬스클럽이다!

노출의 계절! 여름이 코앞이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늘 있지만 바쁜 업무로 시간이 잘 나지 않는 게 직장인의 현실이다. 흘러가는 시간을 이대로 하염없이 보내다 여름을 맞이할 수는 없다. 자투리 시간 15분만 투자해 아래 6가지 순환운동을 순서대로 따라해 보자. 여름 휴가철 에메랄드빛 해변에서 군살 하나없이 멋진 몸매를 과시하는 상상 속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다.

### 2. One Leg Chair Squat

대퇴부 사두근(하체 앞부분)을 조여준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의자 하나를 당신의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둔다. 왼쪽 무릎을 뒤로 구부리면서 왼발을 들어올린다. 등은 곧게 펴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천천히 스쿼트를 한다. 지지가 필요하다면 의자를 붙잡는다. 무릎을 곧게 펴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온다. 강도를 더 높이고 싶다면 가슴 위에 팔짱을 낀 채로 한다. 다리마다 5회씩 3세트 실시한다.

### 3. Chair Deep

의자의 팔걸이를 등 뒤로 붙잡는다.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손 높이와 비슷한 사물 위에 받쳐놓는다. 등을 둥글게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을 낮추어 팔 위쪽이 바닥과 평행이 되게 한다. 이때 상반신은 똑바로 펴야 한다. 잠시 멈추었다가 시작 자세로 돌아간다. 6회 반복해 4세트 실시한다.

### 4. Paper Raise

A4 용지 한 묶음(3kg), 또는 모험심이 강하다면 A3 용지 한 묶음(6.5kg)을 양손에 들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다. 팔을 똑바로 펴고 양 손바닥이 마주 본 상태에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인다. 두 팔을 양옆으로 활짝 벌려 종이 묶음이 어깨와 평행이 되도록 한다. 잠시 멈추었다가 같은 선을 그리며 팔을 내린다. 10회 반복해 3세트 실시한다.

### 1. Desk Press Up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은 채로 상반신을 단련하는 프레스 업 동작이다. 효과가 좋으면서 직장에서 발을 책상에 올려놓는데 대한 훌륭한 변명거리도 된다. 양쪽 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양손은 어깨 너비로 벌려 바닥을 짚는다. 서류 가방을 한쪽 손 밑에 깔아 놓으면 흉근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된다. 가슴이 거의 바닥에 닿을 만큼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팔을 곧바로 펴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간다. 양팔을 각 5회 반복해 3세트 실시한다.

### 6. Side Raise

피트니스클럽의 웨이트랙을 A4 용지로 대체한다. 의자에 앉아 A4 용지 한 묶음을 왼손에 든다. 등은 곧바로 펴고 어깨를 왼쪽으로 내리면서 손을 바닥을 향해 내린다. 어깨를 수평으로 들어 올리면서 종이 묶음을 다시 시작 자세와 같은 높이로 들어 올린다. 양쪽을 각 18회 반복해 3세트 실시한다.

### 5. Desk-chair abs

의자 끝 쪽에 걸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인다. 이때 허리와 의자 사이에는 간격이 생기게 된다. 의자 팔걸이를 잘 잡고 양다리를 앞으로 뻗는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와 2초간 유지한 뒤 무릎을 다시 뻗어 시작 자세로 돌아간다.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고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발 사이에 스테이플러 하나를 끼우고 한다. 15회 반복해 3세트 실시한다.

## 여름 속성 관리, 저탄수화물 식단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주요 비만 원인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탄수화물 섭취를 20~60% 정도로 낮추는 고단백질 식단으로, 지방 섭취를 크게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과체중과 비만인 사람이나 여름휴가를 앞두고 단시간에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지만 체중은 줄이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단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날씬한 몸을 만들고 있는 중인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도 중요하다. 이들에게는 흔히 알려진 ‘저지방 식단’이 좋다.

### • 저탄수화물 식단의 원칙

- 1 아침은 꼭 먹는다. 한 끼를 굶으면 몸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기아 상태에 대비해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한다.
- 2 흰 것을 멀리하라.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잡곡, 통밀, 황설탕을 가까이하라.
- 3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 물 이외의 음료를 되도록 삼가라. 과일에도 매우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 있다. 바나나도 밥이다!
- 4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라.
- 5 가장 쉬운 것은 밥 양부터 줄이는 것이다.

### • 추천 식단 (성인 남자 1일 권장량인 2500kcal에 맞춰진 식단)



**아침** 토스트, 우유, 데친 브로콜리, 소시지, 치즈



**점심** 비빔밥, 된장국, 김치, 두유, 달걀프라이



**저녁** 콩밥, 된장찌개, 장어구이, 멸치볶음, 모듬쌈, 쌈장, 김치

# ART

초현실주의 작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전시가 국내 최초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와 당대 멕시코 작가 10인의 작품이 소개된다.

## 프리다 칼로

### 절망에서 피어난 천재 화가

소마미술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올림픽공원 내)  
2015.6.6~9.4 | 02-425-1077



#### 내 면 으 로 의 깊 은 침 잠

아직 앓던 여학생이 유명 화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와 상당한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한다. 이후 그녀의 삶은 방탕한 남편과 병, 수술 등으로 인해 비극을 향해 치달는다. 그녀가 바로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작가 프리다 칼로(Frida Kahlo).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20세기 근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칼로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국내 최초로 열린다. 칼로를 중심으로 멕시코 벽화운동의 주역 리베라와 당대 멕시코 작가 10인의 회화, 드로잉, 사진 및 영상 등 총 100여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남편 디에고의 병적인 호색한 기질, 18세 때 겪은 끔찍한 교통사고로 살아 생전 일곱 번에 걸친 척추 대수술을 감내해야 했던 최악의 운명도 예술에 대한 그녀의 뜨거운 열

정을 막지 못했다. 전시는 총 다섯 주제로 구성되는데, 섹션마다 그녀의 삶과 인생, 절망을 딛고 일어서 펼친 강렬한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그녀의 자필 편지와 의상 및 장신구, 그리고 부부를 찍은 영상 등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프리다의 그림은 멕시코 정부가 국가 재산으로 관리해 해외 반출이 어렵다. 이번 전시 작품은 프리다의 지지자였던 멕시코 영화사업가 겔먼 부부의 컬렉션으로, 현재 미국 뉴욕 베르젤 재단이 소장하고 있지만 멕시코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을 찾게 됐다. 국내 미술 애호가로서는 다시 보기 어려운 기회다. 2015년 여름, 프리다의 비극적 삶과 사랑, 멕시코 근대 역사까지 아우르는 이번 전시를 놓치지 말자.



# FRIDA KAHLO



- 1 Diego on my mind (Self portrait as Tehuana), 1943
- 2 Self-portrait with Necklace, 1933
- 3 Self-Portrait with Monkeys, 1943
- 4 The bride who becomes frightened when she sees life opened, 1943
- 5 The Love Embrace of the Universe, the Earth (Mexico), Diego, Me and Señor Xólotl, 1949

